

월간 실적보고

2015.01

Summary of 2015 Jan

1. 해외 총 송객인원 (패키지+티켓) **43.3%** 성장

- 패키지 **31%** / 티켓 **81% YOY** 성장

패키지와 티켓 각각 창사 이래 최다 월간 송객인원 달성

티켓 역대 최고 **YOY** 성장율 (인원 **6만명**)

패키지 **3개월 연속 YOY** 성장율 **2자리수** (인원 **13.3만명**)

2. 일본, 동남아, 유럽지역 성장에 남태평양 가세

- 일본 **82%** / 동남아 **29%** / 유럽 **26%** / 남태평양 **22%** 성장

- 일본 **5개월 연속 70% 이상 YOY** 성장율

- 전 지역 **YOY 플러스** 성장

해외 총 송객인원 2010년 이후 최고 월간 성장을 달성

15년 1월은 패키지와 티켓 합산 인원 YOY 43.3%를 기록하며, 불과 한달전인 14년 12월의 2010년 이후 최고 월간 성장률 (34.8%)을 갱신했습니다. 또한, 패키지와 티켓 모두 창사 이래 역대 최고 송객인원을 달성했습니다. (패키지 13.3만명 / 티켓 6만3백명) 패키지는 14년 11월부터 2자리수 성장을 지속했으며, 34개월 만에 30% 이상의 YOY 성장율을 기록했습니다. 인원 면에서도, 역대 최고수치인 13.3만명을 송출했습니다. 근 1년간 낮은 성장율을 보이던 패키지의 반전은, 우호적인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인원 MS 확대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티켓은 월간 송객인원 6만명을 역대 최초로 넘어 60,300명을 달성하였고, 81%의 YOY로 2010년 이후 최고의 성장율을 보였습니다. 기저효과도 있지만, 1월 성수기의 출국수요를 새로운 항공 GDS로 흡수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성장의 요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패키지와 티켓이 동반하여 성장하는 모습은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패키지와 티켓 동반 성장

전체해외출국자 유치인원은 194,079 명으로 전년대비 43.3%성장

순수해외패키지 유치인원은 133,695명으로 전년대비 31%성장

해외티켓 유치인원은 60,384명으로 전년대비 81%성장

(패키지 YoY : 14년 9월 8.7% → 10월 9.5% → 11월 16.5% → 12월 21.8% → 15년 1월 31%)

(티켓 YoY : 14년 9월 22% → 10월 35.8% → 11월 25% → 12월 62.8% → 15년 1월 81%)

(단위 : 명, %)

	패키지	티켓	총 송객인원
2015	133,695	60,384	194,079
2014	102,040	33,364	135,404
YOY	31.0%	81.0%	43.3%

치고 나가는 일본과 동남아, 꾸준한 유럽, 가세하는 남태평양

1월 해외 지역별 인원비중은 동남아 48%, 일본 22%, 중국 17% 입니다. 16개월 만에 모든 모든 지역이 플러스 성장을 하며 2015년을 시작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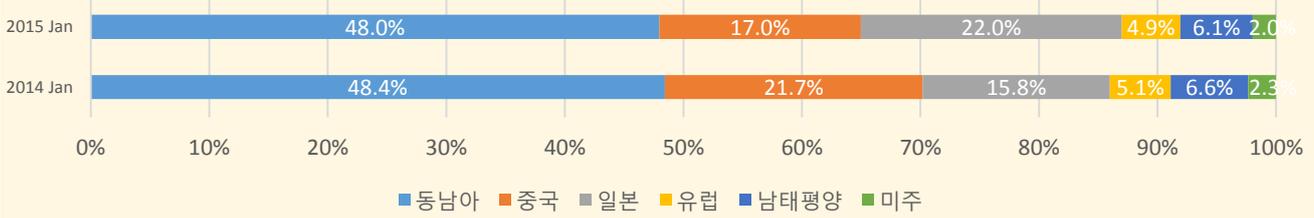
일본 지역은 82.3%의 YOY 인원성장을 보이며, 2014년 9월부터 매월 70% 이상 성장 했습니다. 1월 인원비중 22%로 이는 2011년 쓰나미 직전 수준인 25%에 근접한 수치 입니다. 방사능 관련 불안 감소, 엔저와 저유가 등의 호재로 인해, 일본의 성장이 장기화 되면 예년의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남아 지역은 29.5% 인원성장을 했으며, 2015년에는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전년 동기간 역성장이 올해의 기저효과로 돌아왔으며, 그동안 부진의 원인인 정치 불안도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럽 지역은 26.2%의 성장으로, 18개월 연속 두자리수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무난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는 유럽의 성장은 단기 이슈나 미디어 노출 덕이 아닌 여행시장 성숙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남태평양은 2014년의 역성장 추세를 14년 12월에 16%의 성장으로 반전시킨 후 15년 1월에 22% 성장하며, 회복세를 이어 갔습니다. 그동안 부진이 길었던 만큼 지속적인 회복이 전망됩니다.

인원 비중



예약률 증감 (PKG)

(단위 : 명, %)

	2월	3월	4월
2015년	92,831	53,545	24,256
2014년	77,665	36,379	17,292
증감률	19.5 %	47.2 %	40.3 %
2014년 마감	94,083	76,235	79,769

* 2015.2.1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

2014년 4분기부터 이어 온 예약률 호조가 2015년 2분기 시작인 4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플러스 성장을 하는 와중에, 기존 성장 그룹인 일본, 동남아, 유럽과 더불어 남태평양 지역이 회복세를 보여주며, 2015년 2분기의 실적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